

축복이 사명이 되는 삶 (민수기 6:22-27)

오늘은 축복이 사명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선물과 축복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리고 더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리고 종류도 사실상 제한이 없다. 축복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종류는 헤아릴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만일 선물 받으면 행복함을 느끼신다면, 다른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행복이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최고로 누릴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축복을 선물같이 받았다. 내가 방금 우스개 소리로 받아서 기분 좋으면 여러분들도 선물을 주라고 말씀 드렸는데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축복을 선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축복이고, 전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민수기를 읽다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명하신 것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특히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뭐라 하시냐면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시킨 것은 이 축복을 제사장이 주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복을 주려고 하니깐 니가 알게 해라. 어떤 부류의 신앙인들은 너무 복음을 모르고 복받기만을 바래서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복음과 전도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단순히 욕심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기 바란다. 핵심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냐는 것이다. 몇 해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Amazon Alexa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그냥 받아만 두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가고 나서 한번 이걸 셋업해봐야겠다 해서 Instruction을 읽고 설치를 했다. 그랬더니, 내가 말로 불을 끄고 킬수가 있었다. 그리고 날씨를 물어보면 날씨를 알려주고, 말로. 정보를 물어보면 정보를 알려주고, 음악을 켜라, 소리를 높여라 낮춰라 하면 그대로 다 이게 해주는 것이었다. 참으로 세상 편리해졌다는 것을 핸드폰 이후에 다시 느끼게 되었었다. 이처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면 그냥 기계인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내가 말만해주면 불도 꺼주고 하는 그런 것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는 것 봐서 축복을 출가 말하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을 복음 모를 때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복음안에 들어왔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 제대로 누리려면 성경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알아야 누릴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란다.

1. 축복의 내용

먼저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누릴수 있는 것이다.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나? 사실상 오늘 문의 말씀을 보면 4가지의 복을 약속하신 것 같지만 사실상 3가지다. 24-26절을 잘 보시면 이 세절의 문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24절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25절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향해 비치신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26절은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신다.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에는 소유, 성공, 번영, 생산, 건강, 장수같은 것들이 다 포함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복들을 다 받고 싶어하시지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아니다. 이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다. 이것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금 소유도 있고, 어느정도의 성공도 있고, 번영도, 건강도, 장수도 다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주시겠다는 말인가? 아니다.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못 누려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 할만큼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우리 인생이 늘 풍족해야만 한 것은 아니다. 인생이 풍족할 때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 못한다. 때로는 광야길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풍족한 길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주셨다. 걱정 말아라. 절대로 너희는 죽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사람이 대적이 쳐들어와야만 죽는 것이 아니다. 배고파도 죽고, 잘못 넘어져도 죽고, 속상해도 죽고, 췌장해셔도 죽는 것이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미 주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쁘고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만족이 안되는 것이다. 왜냐면 창세기 3장 때문이다. 우리 인생은 에덴동산처럼 하나님이 다 주고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가?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고, 우리의 성격, 상처들이 따지고 보면 다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거 다 회복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나?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많은 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지키고 다시 다 살려내시는 것을 믿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 약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해주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미 주신 나의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을 믿기 바란다. 사단 마귀는 자꾸 있는데 못 누리게 한다. 이미 나에게 주신 세상적인 복들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인생에 딱 맞는 축복을 이미 다 주셨다. 나에게 더 많고 적은 것이 더 낮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게 해주신것이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이 믿음을 빼앗겨 버리면, 비교하게 된다. 그런데 비교를 해도 꼭 내가 남보다 못한것들만 가지고 비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 못 누린다. 빠져나와야 된다. 어떻게? 내가 받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껏 나와 함께 해 오셨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할때에도. 내가 몰랐을 뿐. 이제부터는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어때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은 하지 말고 믿음으로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안을 열어 믿고 볼수 있을 때, 모든 것은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2. 은혜와 평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최고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넘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아신다. 사실, 아무리 결단하고 마음 먹어도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5절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향해 비치신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쓰인 은혜라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 쓰이는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다.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정심을 느끼다 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우리가 햇빛을 피할수 있는가? 밤에만 나

다니면 피할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밤에도 햇빛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면 밤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볼 수 있다. 왜냐면 달빛과 별빛이 있기 때문에. 그 달과 별빛은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못 피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들을 부르신다. 집요하게 복음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어떻게든 비추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내가 영접 하고 교회다니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이 봤다. 그런데 설령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미워지고, 더 은혜가 사라지고 그러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은 남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탁구장에서 그때 당시 담임목사님을 만나서 탁구친구로 오래동안 탁구를 치다가 담임목사님이 권유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 거절도 너무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나오신것인데, 그냥 와서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던 중, 어느날 설교를 듣는 중에, 담임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하시면서 “병신”이라는 말을 하셨다. 그런데 하필 그 말이 그 성도님에게 꽂혀버린것이었다. 마치 그 병신이 자기 같다는 생각이 든 그 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과연 그 성도님이 계획한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10년 20년 30년 기다리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2천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다 이뤘놓으시고 내가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이자,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계속 불러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신자나 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부르셨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보고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은 지엄한 심판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게 있다. 그게 그날 잘못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믿고 있는 본성이었다. 사실은 애굽땅에서 구출을 받을만한 자격조차도 없었다. 만일 그런 자격이 있었으면 왜 어린양이 필요했겠는가? 자격이 안되니까, 그래서 어린양 잡은 것이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거기까지 가라 한거다. 다시 말해서 그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거기 있던 사람 다 죽은 것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다.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손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음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정말 말그대로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교회의 교역자나 장로님들이 더 많이 누려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분들이 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주시 원하신다. 오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다. 샬롬은 말 그대로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든, 사단이든 이미 그리스도 앞에 다 끝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하고 있다면 사실은 변하지 않은 나의 자아와 복음안에 있는 내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3-24절에**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부 싸움이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싸우는 싸움인가? 아닙니다. 나와 싸움이다. 내가 참으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저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참기 싫고 저주기 싫은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우리를 향해 한없는 은혜를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깊이 묵상해보니 이런 깨달음이 왔다. 내가 어느날 아내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와서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슬슬 눈을 맞추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풀렸구나 하고 안심이 된다. 상대방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고 바라보고 있지 않을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가 없다. 그런

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기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백성들에게 빌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해주신 것이다.

3. 축복의 증인

그런데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든다. 내가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냥 감사한것만은 아니었다.

출 33: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얼굴을 보고서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대제사장이다.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정결하게 한 후에 1년에 한번 지성소 안 언약궤 앞으로 나아간다. 백성을 대표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속죄일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만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히 10:19-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전에 있던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수 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1년에 한번씩 돌아오게 만드셨다. 왜냐면 기억하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매년 성탄절에 오신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좀 다르다.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데 그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잘 계신지 확인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잘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바로 내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고, 그것을 감사할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완전한 답이 되는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받을 축복은 없다. 오히려 그 축복을 몰라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축복이다 내 삶으로 증거해야 할 사명만이 있는 것이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이다. 언약으로 답을 내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복도 필요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심을 믿었던 그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강이 있을 것을 믿으며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요, 다윗의 인생이요, 사무엘의 인생이요, 다니엘의 인생이었던 것이다. 왜 우리가 7여정을 따라가야 하고 왜 우리가 7방대를 세워야 하는가? 이 성탄의 계절이 이유를 발견하기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한다. 해야 할 것 해야 한다. 그런데 방향과 이유가 없으면 다 소용없다. 그 방향과 이유가 나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겁고 성공하는 것이다.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놀라운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다 이루신 복음안에서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